

광주·전남 위험지구 100여곳이나 되는데...

국내 산사태 예측지도엔 호남 없다

지질연·소방재청 개발 도면 영남과 같이 빠져

“단기간 성과 위주 정책 탓”... 시스템 보완 시급

광주·전남지역 산사태 예상 지역이 100여곳에 이르는데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이 개발한 산사태 예측 지도에 호남 지역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사태 예측 지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을 단축한데 따른 것이다.

2일 지질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소방방재청과 맺은 ‘산사태재해 예측 및 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협약(MOU)에 따라 개발한 전국의 산사태 예측 도면에 호남과 영남 지역은 아예 제외됐다.

소방방재청에서 애초 연구기간을 당초 5년에서 3년 정도로 단축했기 때문에, 지질연은 14억5000만원을 들여 2009년 4월말까지 2년8개월동안 서울, 강원, 충청권 등을 대상으로 한 산사태 예측 지도를 만들었다.

당시 산사태 예측 지도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연구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연구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변경했다는 게 소방방재청측 입장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과제수행 기간을 5년이나 10년정도로 잡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당시 국가 R&D사업 부문에서 실용화·사업화 등 성과를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다른 과제들도 대부분 기간을 줄이고 우선 활용하자는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호남의 경우 지리산을 비롯, 유명 산이 많은데다, 전남의 경우 붕괴 위험이 있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 48곳에 이르는 만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기간 성과 위주의 연구개발(R&D) 정책으로 호남지역에 대한 산사태 예방 시스템 마련에 차질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지질연 관계자는 “산사태는 기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이상 기후 등에 대비해 산사태 예측 지도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와 함께 수분이나 빗물이 사면으로 흘러들어가는 양을 계측하는 장비를 활용, 강우량을 반영한 예측지도를 만드는 등 현 산사태 예방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지질연에서 산립청이나 다른 사업단의 예산을 지원받아 나머지 부분을 추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방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연합뉴스



강운태 광주시장이 2일 오후 청사 2층 영상회의실에서 화정주공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U선수촌 소형평수 확대 현대에 요청”

강시장, 화정주공 재건축 비대위와 대화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될 화정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수 확대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일 오후 광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화정주공재건축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대표들과 2차 간담회를 갖고 “25평형대 소형평수를 애초의 522세대 또는 그 이상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업자인 현대건설 측과 협의중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현대건설 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소형평수 확대를 요청한 결과, 소형평수를 확대할 경우 정해

진 총사업비 때문에 권리가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하지만 권리가액 변동 없이 소형평수를 현재의 390세대에서 조합원 총회 당시 의결된 522세대나 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재차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현대 측이 적극 검토키로 해 현재 진행형이지만 구체적인 세대수를 단정할 수는 없다”며 “재건축사업은 민간경제 분야라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주차장 면적을 줄여 사업비를 감축시켜야 한다는 비대위의 요구에 대해 “다른 민영아파트와 비교했

을 때 결코 지하주차장이 넓게 설계된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사비 감축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지상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비대위 측은 사업비 절감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높이는 방안으로 일반분양가를 현재 730만원대(34평형 기준)에서 40~50만원 올리고 상가분양수입을 총수입에 포함하는 방안, 지하주차장을 축소하고 직접공사비용이나 조합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 분양신청 기간을 현재 32일에서 20일 정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요청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도대체 안떠내려 보낼게 뭐냐?

개각 꿈틀... MB, 광주·전남 인재 발탁 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개각을 고심 중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 중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인물을 중용, 임기 말 국정운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지역 출신 인사 발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개각이 국민통합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면 정권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2일 여론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개각을 놓고 상당한 논의가 이

뤄지고 있으나 이 대통령의 의중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8월 말이나, 추석 이후인 9월 중순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각 찬성 진영에서는 이 대통령 임기 1년 반을 앞둔 시점에 정권에 대한 충성도와 전문성이 높은 인물을 전면에 포진시켜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여기에 불가불한과 최근 집중 호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다 내년 총선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내각을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자. 이에 따라 교체 대상으로는 이재오 특임, 장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장관들이 꼽히고 있다.

후임 문화부장관으로는 현재 박선규 문화제2차관과 이동관 청와대 연륜특보, 홍상표 전 홍보수석, 복지부장관으로는 강운구 건강보협심사평가원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진영관 청와대 고공복지수석 등이 거론된다.

또한, 특임장관에는 3선 의원 출신인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총선 출마에 개편설 ... 이달 말·추석이후 단행 가능성

영광출신 강운구 건보평가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거론

여기에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새 인물론이 제기되고 있는 통일부 장관에는 현 정부 초대 대통령 실장을 지낸 류우익 전 주중 대사가 거론된다.

그러나 8월 개각설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각이 이뤄진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총공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데다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들의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단 기용한 인물은 쉽게 바꾸지 않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고려할 때 당분간 유입되지 않

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개각이 이뤄진다고 해도 광주·전남 지역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개각이 이뤄진다고 해도 국민통합적 성격보다는 임기 말 확고한 국정운영에 방점이 놓여 가능성이 높아 정권과의 소통이 강한 인사가 중용될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영광 출신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강운구 건강보협심사평가원장이 거론하고 있어 중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초호화 여객선 스타크루즈와 함께 하는 특별한

제주여행!!

■ 제주 특가상품 ! (2박 3일) 95,000원~

시간	교통편	세 부 일 정	비 고	
제 1 일	09:00 14:00경	스타페리 전용버스	목포항 출발 / 제주항도착 제주 현지직원 미팅후 예코랜드기차여행 - 1800년대 증기기관차인 볼드윈기차를 모델화하여 영국에서 수제품으로 제작된 링컨기차로 30만평의 꽃자왈 원시림을 기차로 체험하는 테마파크 숙박 및 석식 숙소 : 일반호텔	중식:자유식 석식:호텔식
	제 2 일	전 일	전용버스	조식 후 세연교/세션 외돌고-돌메나굴 올레 트레킹(약 1시간소요예정) 석부작 테마농장 / 중식 해피타운(중국기에. 오토바이쇼) 로케디오월드/영화박물관(50년대중후) 필수 옵션: 더-마파크 숙소 : 일반호텔
제 3 일		전용버스	조식 후 민.공예품 전시장 휴애리 생태공원/홍돼지쇼 숨마. 조림밭 체험 / 홍돼지쇼 제주아트랜드(미술관, 분재원등) 민속보존마을/ 농수산물직매장 해녀촌 필수옵션: 삼국지랜드(변검쇼) 제주항 출발 / 목포항 도착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자유식

※ 참가일정 및 조건은 현지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안내 (합숙기준)

요 금 (합숙기준)	비수기	95,000	2인실 1박당 10,000 / 3~4인실 1박당 5,000 추가
성수기	112,800	2인실 1박당 15,000 / 3~4인실 1박당 10,000 추가	
공통사항 : 주말(금~일) 출발 10,000원 추가			

출발일자 2011. 상시

REMARK **제외기간 1)7/28~31 2)8/1~3 3)8/13~15**

포함사항 : 왕복선박비, 견학 6식, 일정표상 입장료, 현지차량비, 수송비
불포함사항 : 여행자보험, 필수음식, 기타개인경비, 기사/가이드 팁, 세면도구 등등

※계좌번호 : 농협 317-0002-3837-31(주)아름여행사
농협 352-0115-4438-33 예금주 이정우

(주)아름여행사 **1577-0419**

|유남여행사 **1588-7429**